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현을 위한 계획적 고려사항 - 부산지역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실천사례 거주자 의견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lanning Consideration for the Realization of Sustainable Housing - In the Aspect the Residents' Opinions at the Pilot Project 'Livable City Making' in Busan -

김묘정* 정지석**
Kim, Myo-Jung Jeong, Ji-Se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incomplete aspects of the government pilot project 'Livable City Making'. Also, the study was conducted to consider a plan that residents will satisfy for the realization of the project. The study used a case study and a survey method in research process. For the case study, two projects in Busan that have similar planning were chosen. The contents of the survey included the residents' interest in their housing area, their recognition and opinions of the pilot project, their satisfaction about the environmental alterations, and their thought about conditions of sustainable housing.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idents were satisfied with the alteration of the street space and the provision of green and open spaces. Meanwhile they revealed that the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vitalization of community are insufficient. Second, they also believed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pedestrian streets, the provision of parking lots, and the remodeling of the deteriorated buildings are incomplete. Third, the residents believed that the following provisions need to be made for successful sustainable housing waste discharge needs to be minimized, facilities need to be used for saving energy,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need to be provided within their housing areas, and safe street spaces and comfortable traffic systems need to be provided.

Keywords : Livable City Making, Sustainable Housing Area, Planning Consideration

주요어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속가능한 주거지, 계획적 고려사항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지속가능한 주거지 계획은 생태나 환경친화적 관점에 치중하지 않고 사회, 문화, 경제적 차원까지 그 개념을 확대한 것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도시와 주거지 계획에 지속가능성의 함의를 포함시킨 실천사례가 다양하게 제시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이를 위한 노력을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차원의 대표적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천사례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전략적 도움과 재정적 지원이 따르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실천사례는 주민주도형 주거지 활성화를 위해 구현되는 경우와 도시 및 주거지의 특화발전과 관련한 경우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천사업을 통해 많은 거주자들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속가능한 주거지를 만들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도 인식을 변화시키고 있어 자신들의 주거지를 위한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계획가와 전문가 입장에서 계획지침을 수립하고 적용해 나갔던 기존과는 달리 거주자의 공감형성과 참여유도를 통해 거주자가 만족스러워하는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현을 위한 고려사항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그동안 지속가능한 주거지 계획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았으나 실제 실천사례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의견이나 사업 후 달라진 주거지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그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시범도시 및 마을의 거주자들이 그들의 지역 및 마을에서 실천한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과 변화된 마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과 만족도를 느끼며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실천항목 가운데 지속가능한 주거지가 실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기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현에 있어서 거주자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계획적 고려사항들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도시 주거지 실현에 있어서 거주자 만족도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의견까지도 고려할 수

*정회원(주거자), 울산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공학박사
**정회원(교신저자), 대구한의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본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59-C00054).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는데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써 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

1) 연구내용 및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천을 위한 정부의 노력, 실천항목의 내용과 반영정도를 문헌고찰을 통해 검토하였다. 둘째, 사례 주거지 거주자에 대하여 실천사업 이후 변화된 주거지에 대한 의견과 만족도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현을 위해 중요한 실천항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자신의 주거지에 대한 관심 및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거주자의 특성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이는 향후 실천사업 실현시 거주자 특성별 관심과 공감형성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파악해 보기 위함이다. 셋째,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주거지 계획에서 거주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보완하고 이들이 만족하는 부분은 실천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계획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현황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황조사에서는 ‘살고싶은 도시현황조’ 사업내용과 물리적 환경개선 특성을 파악한 후 지속가능한 실천항목을 어느 정도 반영한 후 인지 검토하였다.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인 설문지는 사전 예비조사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으로, 설문내용에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을 비롯하여 주거지와 이웃과 실천사업에 대한 관심정도, 살고 있는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변화에 대한 의견, 변화된 주거지에 대한 만족도, 실천항목의 중요성으로 구성되었다. 이 때, 조사를 위한 실천항목은 ‘Habitat Agenda(II)’에서 제시하는 주요주제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환경친화적 주거지 계획요소 제시에 초점을 둔 연구와 다르게,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 커뮤니티, 주거지에 대한 정체성, 사회적 통합, 경제발전, 역사문화적 지속성, 그리고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 계획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속가능성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는 항목이라 여겨 측정도구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표 1>.

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매우 불만족한다(1점)’부터 ‘매우 만족한다(5점)’로 구성된 5점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였다. 실천항목에 대한 중요성을 묻는 설문에서는 일반 거주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각 주제별 4개 이내의 문항으로 작성하여 조사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 실천사례는 정부차원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주거지 환경개선이 실현된 2개 지역이다. 그동안 시범사례로 선정된 지역은 모두 94개 지역이며 주거지가 대상인 사례는 38개인데 이 가운데에서는 노후주택의 보수(김천), 가로공간 활성화(대구),

국유지의 공원화(부산 남구), 자전거도로(창원) 등과 같이 특정 부분의 개선사업에만 치중한 사례가 많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상 사업이 완료되었고 Habitat Agenda II에서 제시하는 실천항목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곳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8개 시범사례 가운데 사전조사를 통하여 주제별 실천항목이 반영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과 북구 화명2동 사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두 지역은 모두 2007년 시범마을로 선정되어 현재는 모두 사업이 완료된 곳이다. 두 사례 모두 주거지의 환경개선을 주요 계획개념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보행자 중심의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의 확대,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된 생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한 사업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각 사례지역의 실제 거주자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9년 9월과 10월에 걸쳐 각 사례지역에 소재한 주민센터, 아파트 단지, 상가밀집지역 등을 직접 방문하여 거주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거주한지 오래되지 않은 거주자의 경우 해당 주거지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업의 명칭이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280부가 본 연구를 위한 최종분석에 사용되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거주자 특성별로 실천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주거지에 대한 관심정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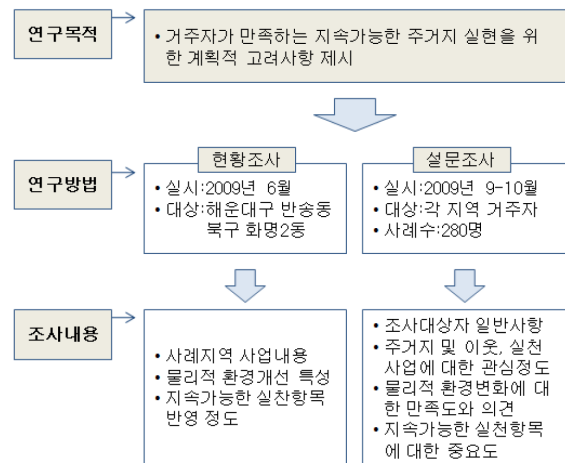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방법 및 조사내용 요약

II. 이론적 배경

1. 지속가능한 계획 개념과 실천항목

1) 지속가능한 계획 개념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브룬트란트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 1987)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한 계획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저해하지 않고 현재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로, 세대내, 세대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형평성을 존중하자는 개념이다. 현대의 도시와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사회·경제 등 각 분야의 지속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려는 의미에서 등장하였다. 이후, 1992년 UNCED(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리우선언’과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고, 1996년 Habitat(II)(제2차 세계인간정주회의)가 개최되면서 지속가능한 주거지 계획에 대한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하였다. 지속가능한 계획은 한정된 자원과 에너지를 고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개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활력 있는 정주지를 만드는 것이다(이규인, 2003). 또한, 지속가능한 주거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회를 물려주기 위해 생태계의 수용능력 한계 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하며 자연과 문화적 유산을 물려주어 그 가치가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주거지라 정의할 수 있다(유수훈·조동우, 2004). Habitat(II)에서 제시하는 생태환경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경제적 측면별 주요 주제와 실천항목은 <표 1>과 같다.

- 2) 지속가능한 주거지계획을 위한 실천항목
 - (1) 생태환경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계획
 - ① 토지의 이용

토지는 인간정주의 근원지이므로 빠르게 발전하는 도시에서는 복합적 토지이용을 고려해야 한다. 주거지, 상업지, 농경지, 녹지, 서비스시설이 함께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한 주거지 개발과 재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지

도시에서는 물부족, 수질오염, 공기오염, 쓰레기 증가, 소음 등의 환경적 문제가 항상 있어왔다. 이러한 요소들은 건강하지 못한 주거지의 원인이기도 하다. 모든 거주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피해를 주는 원인을 통제해야 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피하고 리모델링이나 물리적 환경개선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

③ 에너지 및 자원사용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은 대체에너지의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자연에너지 활용, 에너지 절약시설, 에너지 재순환과 재활용, 무동력 또는 저에너지 교통시스템과 같은 내용을 실천항목으로 제시한다.

④ 교통 및 통신 시스템

다양한 시설로의 접근을 위해 교통시스템과 정보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교통시스템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어 오염, 혼잡함, 사고의 원인을 제공

표 1. 지속가능한 주거지를 위한 주요 주제의 분류

주요주제	계획조건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지*	토지의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파괴를 최소화한 토지개발 복합개발 • 다양한 활동 유도를 위한 흥미로운 공간 • 녹지 및 친수공간 확보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 최소화 • 쓰레기 배출 최소화 • 수자원 보호 • 산림 및 생물서식지 등 자연생태계 보존 • 생태계를 위한 지역 확보, Bio-top 조성 • 거주자의 건강과 복지 고려 • 활기찬 주거지: 예술적 요소, 맥락적 디자인 • 물리적 환경개선 유도
	에너지 및 자원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에너지 사용 • 에너지 절약 시스템 • 자연에너지 활용 시스템 • 에너지 재순환 및 재활용
	교통 및 통신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를 위한 위계있는 도로구조 계획 • 다양한 공간으로의 접근가능성 확보 • 대중교통체계 활성화 • 무동력 및 저에너지 교통시스템 • 주차계획
사회문화적 측면	사회적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복지서비스 • 저소득층을 위한 적절한 주거공급 • 사회적 통합 • 커뮤니티 공간 • 차별없는 계획: 장애인 고려 • 여성, 청소년, 아동을 위한 공간 • 원주민 고려와 이주민의 토착화 • 범죄 및 사회폭력 감소 • 참여디자인 •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인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계획에 따른 인프라/서비스 시설계획 • 인구이동 및 인구변화 예측 • 세대수 계획 • 거주자의 인구학적 특성 파악
	역사문화적 유산보존/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장소, 환경, 유물의 보존 및 복원 •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
경제적 측면	도시경제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기회 제공 • 도시, 주거지의 건설과 재활성화 • 주택시장 활성화 • 인프라시설
	재해예방 및 완화/사후 복구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 • 건축기준 정립 및 실행 • 재해예방 및 완화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 재해후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전략지침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 가운데 ‘실천항목에 대한 중요성’ 조사를 위해 사용된 6개의 주제이며, 나머지 주제들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거주자가 직접 평가하기에 다소 어렵거나 사례주거지의 사업계획 개념과 관계가 없어 조사에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으므로 설문구성에서 제외하였음. ※UN(1996)의 The Habitat Agenda II를 재구성함

하기도 한다. 도시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2)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계획

① 사회적 개발

도시 인구집중으로 고용불안, 빈부격차, 불량주택 거주자 증가, 도시와 지방의 불균형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다. 사회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안정된 주거지의 제공을 위한 계획으로 정책적 해결책 마련과 도시와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필요로 하는 주제이다.

② 인구관리

지속가능한 주거지 개발을 위해서는 인구변화, 인구학적 패턴과 관련한 인구관리가 요구된다. 이는 도시 및 지역의 계획과 관리차원에서 고려될 부분인데, 도시 인프라 시설 및 서비스 시설 제공에 관한 계획은 인구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이다.

③ 역사·문화적 유산보존 및 복원

역사·문화적 유산은 지역의 정체성과 정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장소, 상징적·종교적 유산은 지역 사회에서 중요하고 특별한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환경과 자연, 장소와 유물의 보존 또는 복원하는 것은 역사·문화적 지속성을 추구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역사·문화적 유산과 가치를 깨닫고 지역주민에게 중요성을 알리며 이들을 위한 역사교육 실천 등은 좋은 방안이 된다.

(3)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계획

① 도시경제의 개선

도시의 경제 활성화는 거주자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경제적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이 도시에서 창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도시의 경제발전은 도시건설, 도시 재활성화, 도시 인프라시설 개선, 주거지 환경개선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므로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② 재해예방 및 완화와 사후복구 능력

자연재해와 인재 모두 주거지의 모든 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건강, 재산, 사회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재해예방 및 완화방법, 재해 발생 이후의 복구능력 증진 방법 등이 필요하다.

2.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과 연구동향

지속가능한 주거지 계획을 위해 정부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실천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는 대부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천사업으로, 개발대상이 되는 곳은 주로 주거지역이며 주거지 내 기존의 물리적 열악함을 개선하고 마을로서의 부족한 기능을 재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또한, 도시의 노후화된 주거지를 활성화하고 방치되었던 자연생태환경을 복원하며,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속가능한 주거지는 건설이 아닌 개선과 재개발을 중심으로 지역거주자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자체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 있는 요소를 발굴하여 특화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지역주민, 마을대표, 시민단체, 커뮤니티의 지도자가 협력하여 마을가꾸기를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사례는 시범사업공모를 거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위원회를 통해 시범도시와 마을로 선

정되고 있다. 2007년부터 매년 3차례에 걸쳐 총 94개의 시범사례를 선정하였다. 2010년부터는 도시활력재생사업으로 새롭게 분류되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천사례라 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시범사업이 실시된 초기 2007년 선정 사례에 대하여 사업의 특성과 추진과정을 분석한 후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와 참여를 강조하는 연구(이민선·정진주·최효승, 2007)가 시도되었다. 관련연구가 꾸준히 지속되지 못하다가 2009년 선현연구(안상욱, 문준경, 최승희, 2009)에서는 그동안의 시범도시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사업지정에서부터 지원금 교부시기, 사업의 소요기간, 추진실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사업의 세부내용을 물리적 사업과 비물리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파악함으로써 향후 시범도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하였다. 이후,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규모 확대, 조직강화, 내용제고의 측면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연구(이창호·정보리, 2010)가 이루어졌다. 각 측면별로 시범사업이 확대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내용제고 측면에서는 환경 재생을 고려할 수 있는 지침마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계획을 위한 물리적 조건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범사례 선정과 정부차원의 노력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실천사례 거주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달라진 주거지 환경에 대한 의견을 직접 검토하고 분석한 연구는 미흡함을 알 수 있다.

III.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천사례 거주자 의견

1. 사례지역 개요 및 현황

본 연구를 위한 실천사례지는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과 북구 화명2동이다. 두 지역은 모두 하천정비, 보행로 조성, 커뮤니티 공간 확보, 녹지공간 조성, 안전성과 접근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환경개선사업 내용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사례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2>.

1) 해운대구 반송동 사례

사례지역은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으로 1991년 노후화된 주거지와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내 하천과 그 주변공간의 정비, 주거지 전반에 걸친 문화거리 조성, 아파트 담장허물기, 가로변 오픈스페이스,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거주자들의 건강 및 복지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주거지내 오래된 담장의 정비, 다양한 녹지공간 형성, 커뮤니티를 위한 운동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단순한 환경개선이 아닌 사회적 지속성까지 고려하였다. 중심상업지역의 무질서한 가로경관 개선, 기능이 저하된 가로변 주민쉼터에 대한 물리적 시설 정비, 주변 대형가로수와 연계한 Bio 산책로 등 보행자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2) 북구 화명2동 사례

사례지역은 부산시 북구 화명2동으로 오염된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지역내 거주자의 물리적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진 사업이다. 사업의 전반적인 기본방향은 주거지내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단순한 주거지의 환경개선을 벗어나 거주자들의 평생학습공간으로서 마을을 재활성화 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선된 하천과 주변의 물리적 공간이 거주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게 하여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오염된 하천의 복원, 주거지내 위험요소였던 하천 옹벽의 정비, 하천 주변 가로공간 개선, 산책로 조성, 주거지내 친수공간을 제공, 하천과 연계된 녹지공간 확보 및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거주자의 여가장소와 어린이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표 2. 사례지역 사업내용 및 현황

해운대구 반송동	북구 화명2동
<사업내용>* • 하천정비 및 개선 • 문화거리조성 • 가로변 오픈스페이스 • 산책로 조성, 녹지공간 확보 •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사업내용>* • 하천 생태환경 복원 • 마을의 재활성화 • 하천 주변공간의 생활공간화 • 산책로 조성 • 하천과 연계된 녹지공간 등
<사업현황> 	<사업현황> 
• 학교앞 통행로 및 Bio산책로	• 하천주변 보행자전용 가로

*각 사례별 사업계획서상에 언급된 계획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사용된 용어는 다를 수 있으나 현황조사결과 그 내용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음

2.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여자(84.3%)이면서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았으며(55.0%), 40-50대가 절반 이상(62.8%)을 차지하였다. 상당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80.7%) 친한 이웃수에 대해서는 5-15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39.8%), 5명미만(28.8%), 15-25명(24.2%)의 순이었다.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는 5-15년 거주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46.7%로 가장 많았고 1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도 32.9%였다<표 3>.

3. 주거지의 환경변화에 대한 의견과 만족도

1) 환경변화에 대한 의견

주거지의 여러 가지 물리적·사회적 환경변화 가운데 개선이 가장 잘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부분으로는 가로환경 개선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0.9%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녹지공간과 오픈스페이스가 확보된 점이라고 답한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80 단위: 명)

내용		빈도(%)	내용		빈도(%)	
성별	남자	44(15.7)	주택 유형	아파트	226(80.7)	
	여자	236(84.3)		단독/다가구	38(13.6)	
	계	280(100.0)		연립/빌라	14(5.0)	
연령	30대 미만	82(29.3)	친한 이웃 수	기타	2(.7)	
	40대	104(37.1)		계	280(100.0)	
	50대	72(25.7)		거주 기간	5명 미만	66(26.8)
	60대 이상	22(7.9)			5-15명	98(39.8)
	계	280(100.0)			15-25명	60(24.4)
25명 이상	22(8.9)	계	274(100.0)			
가족 수	2명 이하	44(15.8)	직업	5년 미만	56(20.4)	
	3명-4명	192(68.6)		5-15년	128(46.7)	
	5명 이상	42(15.0)		15-25년	52(19.0)	
	계	280(100.0)		25년 이상	38(13.9)	
	계	280(100.0)		계	274(100.0)	
직업	생산/판매/서비스	26(9.3)	계	계	274(100.0)	
	사무관리/전문직	20(7.1)				
	자영업	42(15.0)				
	주부	154(55.0)				
	학생 및 기타	38(13.6)				

경우는 34.6%, 자연환경을 잘 보존시켰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15.7% 였다. 또한, 커뮤니티가 이전보다 활성화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8.7%로 조사되었다<표 4>.

표 4. 환경변화 중 개선이 가장 잘 이루어졌다고 여기는 부분 (n=280 단위: 명)

내용		빈도	%
환경 변화	가로환경 개선	104	40.9
	녹지공간과 오픈스페이스 확보	88	34.6
	자연환경 보존	40	15.7
	커뮤니티 활성화	22	8.7
	계	254	100.0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실천사업을 통해 물리적·사회적 환경변화를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의견을 갖고 있었다 <표 5>.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환경변화의 각 부분별 개선이 잘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거주자들에게 다시 구체적인 의견을 각각 물어보았다. 가로환경 개선 이를해서는 학교^어린이 통학로 정비라고 응답한 경우가 65.4%로 가장 많았다. 녹지공간과 오픈스페이스 확보 이를 알DG 경변화 측면에서는 거주자의 휴식과 공용공간이 될 수 있는 썬디공원 조성을 가장 잘 개선된 변화라고 응답하였다(54.5%).

자연환경보전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오염된 하천을 정비한 일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85.0%),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서는 다양한 마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는 점과(36.4%) 상가지역을 개선하고 활성화시켰다는 점(36.4%)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2) 환경변화에 대한 만족도

다양한 물리적 환경변화에 따라 주거지의 많은 부분이 변화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만족도를 알아보았

표 5. 각 물리적 환경변화에 대한 구체적 의견 (n=280 단위: 명)

구분	내용	빈도	%
가로 환경 개선	학교앞 어린이 통학로	68	65.4
	가로정비 및 도로개설	28	26.9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 도로 조성	8	7.7
	계	104	100.0
녹지/ 오픈 스페이스	주차공간 확보	18	20.5
	쌈지공원 조성	48	54.5
	녹지공간 조성	22	25.0
	계	88	100.0
자연 환경 보존	하천정비	34	85.0
	자연 및 생태환경 보존	6	15.0
	계	40	100.0
커뮤니티 활성화	주민광장 조성	7	18.2
	다양한 마을행사 개최	8	36.4
	노후화된 주택 개조/철거	2	9.1
	상가지역 개선 및 활성화	8	36.4
	계	22	100.0

다<표 6>.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고 그 가운데 사람 살기에 좋은 주거지로 변화한데 따른 만족도 점수가 평균 3.50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주거지가 쾌적해지고(평균 3.44) 그에 따라 자부심도 생겼다는 점에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평균 3.40). 즉, 그동안 하천 및 녹지공간이 정비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고 노후화된 일부 주거지역은 주거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사업이 거주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만족감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실천사업을 통한 변화에도 주거지의 경제적 발전에는 큰 만족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평균 2.86).

표 6. 주거지 환경변화에 대한 거주자 만족도 (n=280)

내용	평균	S.D
안전한 주거지 분위기 확보	3.31	.86
특색있는 주거지 조성	3.31	1.01
쾌적한 주거지 조성	3.44	.87
주거지에 대한 자부심 형성	3.40	.89
사람살기 좋은 주거지로의 변화	3.50	.84
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된 주거지 조성	3.01	.92
이웃과의 교류 증가	3.04	.89
경제적 변화(발전)	2.86	.88

4. 실천항목에 대한 중요성

지속가능한 주거지가 되기 위해 중요한 실천항목은 어떤 것이라고 여기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분석하였다<표 7>. 우선, 거주자들은 지속가능한 주거지 계획을 위한 주제 가운데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천, 강, 저수지 등과 같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39.8%),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여 주거지에 대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36.8%)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주거지를 위한 4가지 실천항목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가 필요

로 하고(29.1%), 자연에너지 등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며(26.8%), 이를 위해 활용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는 것(24.4%)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에너지를 재순환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는 주거지가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주거지의 경제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50.8%), 지역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고(21.5%),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거지를 재활성화 하여야 한다는 항목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20.8%).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와 교통이 갖추어진 주거지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44.4%), 보행자의 안전과 접근성 등을 위한 전용도로 계획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37.1%). 사회적 여아가 활발하고 주민솔 잇융합이 양호한 주거지를 위해서는 주민 잇복지를 위한 사회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4.8%), 주민들솔 잇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고(26.1%), 소외계층을 배려하며(14.9%), 범죄와 사회폭력이 없는 주거지역이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재해예방과 재해후 빠른잇 복구가 가능한 주거지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로 인한 주거지 잇피해를 최소화하는 계획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55.6%). 물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의

표 7. 실천항목에 대한 중요성 (n=280, 단위: 명)

구분	내용	빈도	%
생태/ 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지	쓰레기배출과 환경오염의 최소화	98	36.8
	자연환경(하천, 강, 저수지) 보존	106	39.8
	충분한 녹지공간과 건강한 동네	46	17.3
	흥미로운 주거지 조성	16	6.0
	계	266	100.0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주거지	대체에너지 사용	68	26.8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74	29.1
	자연에너지 활용가능한 설비	62	24.4
	에너지의 재순환과 재활용	50	19.7
계	254	100.0	
주거지의 경제적 향상	지역내 고용의 기회 제공	132	50.8
	노후화된 주택개선과 주거지재활성화	54	20.8
	지역의 주택시장 활성화	56	21.5
	인프라설비 개선	18	6.9
	계	260	100.0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와 교통	안전하고 접근성 좋은 보행자전용도로	100	37.1
	대중교통의 용이한 이용	120	44.4
	자전거도로 조성	14	5.2
	접근처 공동주차공간 확보	36	13.3
계	270	100.0	
사회적 교류와 융합	주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 서비스	120	44.8
	커뮤니티 활성화	70	26.1
	소외계층을 배려한 주거지	40	14.9
	범죄와 사회폭력이 없는 주거지	38	14.2
	계	268	100.0
재해예방, 빠른잇 복구 가능한 주거지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계획	148	55.6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46	17.3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전달체계 구축	50	18.8
	재해후 복구와 재건을 위한 전략 지침 마련	22	8.3
	계	266	100.0

견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18.8%), 재해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17.3%)는 항목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5. 주거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사업에 대한 인지도

조사대상자는 현재 살고 있는 그들의 주거지와 그 곳에서 이루어진 실천사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았다<표 8>. 조사결과, 조사대상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실천사업에 대한 인지정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평균 3.94 점). 거주자들은 또한 평소 주거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평균 3.44점), 실천사업으로 변화하는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하여 이웃과 많은 의견교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평균 3.17점). 상대적으로 조사대상자의 동네 행사 참여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지만(평균 2.98), 전반적으로 주거지와 실천사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8. 주거지에 대한 관심과 실천사업에 대한 인지도

(n=280)		
내용	평균	S.D
동네 행사 참여정도	2.98	1.21
환경변화에 대한 의견교환정도	3.17	1.07
평소 주거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심정도	3.44	.98
주거지의 실천사업에 대한 인지도	3.94	.84

1) 동네행사 참여정도 차이분석

동네의 행사 참여정도를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가족수, 직업, 친한 이웃수,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9>.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가족수가 적을수록, 친한 이웃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동네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경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생산/판매/서비스에 종사하는 거주자보다 주부이거나 사무관리직 및 전문직에 있는 거주자가 동네의 행사에 더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가족수가 적을수록 동네행사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및 부양해야 할 가족의 수가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동네에 대한 관심이나 행사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 환경변화에 대한 의견교환 차이분석

거주지의 환경변화에 대한 의견교환정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직업, 친한 이웃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이 많을수록, 친한 이웃이 많을수록 거주지의 변화에 대해 많은 대화와 의견교환을 나누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에 있어서는 주부나 사무관리 및 전문직에 있는 집단이 환경변화에 대해 주변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0>.

3) 동네에 대한 평소 관심의 차이분석

동네에 대해 평소 갖고 있는 관심의 정도는 어떤 차이

표 9. 동네행사 참여정도 차이분석 (n=280, 단위:명)

일반특성		N	평균	SD	F	Scheffe ¹⁾
성별	남	44	2.09	1.21	30.78 ***	-
	여	230	3.15	1.14		
	계	274	2.98	1.21		
연령	30대미만	82	2.44	.99	15.69 ***	a b b
	40대	104	3.02	1.28		
	50대이상	88	3.43	1.14		
	계	274	2.98	1.21		
가족수	2명	38	3.26	1.22	3.56 *	a ab b
	3명-4명	192	3.03	1.24		
	5명 이상	42	2.57	.91		
	계	272	2.99	1.21		
직업	생산/판매/서비스	26	2.31	1.22	6.56 ***	a ab abc bc c
	학생 및 기타	36	2.56	1.31		
	자영업	40	2.65	1.21		
	주부	152	3.21	1.12		
	사무관리/전문직	20	3.50	1.14		
계	274	2.98	1.21			
친한 이웃수	5명미만	64	2.31	1.19	12.14 ***	a b b b
	5-15명	96	3.06	1.11		
	15-25명	58	3.45	1.11		
	25명이상	22	3.45	1.10		
계	240	2.99	1.21			
거주 기간	5년미만	56	2.36	1.27	10.57 ***	a b b
	5-15년	126	3.03	1.11		
	15년이상	90	3.27	1.20		
계	272	2.97	1.22			

*p<.05 **p<.01 ***p<.001 1)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음

표 10. 환경변화에 대한 의견교환 차이분석

(n=280, 단위:명)						
일반특성		N	평균	SD	F	Scheffe ¹⁾
성별	남	44	2.09	1.21	13.43 ***	-
	여	228	3.15	1.14		
	계	272	2.98	1.21		
연령	30대미만	82	2.90	1.08	3.79 *	a ab b
	40대	104	3.25	1.00		
	50대이상	86	3.33	1.12		
	계	272	3.17	1.07		
직업	생산/판매/서비스	26	2.69	1.22	3.42 *	a ab ab b
	자영업	40	3.15	.86		
	주부	150	3.28	1.04		
	사무관리/전문직	20	3.60	.94		
	계	236	3.22	1.04		
친한 이웃수	5명미만	64	2.66	1.11	10.18 ***	a b b b
	5-15명	94	3.34	.81		
	15-25명	58	3.41	1.10		
	25명이상	22	3.73	.88		
계	238	3.21	1.03			

*p<.05 **p<.01 ***p<.001 1)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음

가 있는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표 11>, 성별, 연령, 가족수, 친한 이웃수,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가족수가 적을수록, 친한 이웃수가 많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평소에 자신의 동네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연령이 30대 미만인 집단에 비하여 40대 이상인 집단의 동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학생, 젊은 직장인 등

표 11. 동네에 대한 평소 관심의 차이분석

(n=280, 단위:명)

일반특성		N	평균	SD	F	Scheffe ¹⁾
성별	남	44	2.86	1.19	19.20 ***	-
	여	226	3.55	.89		
	계	270	3.44	.98		
연령	30대미만	82	3.07	1.05	8.59 ***	a b b
	40대	104	3.61	.93		
	50대이상	86	3.58	.87		
	계	272	3.44	.99		
가족수	2명	34	3.82	1.11	3.29 *	a ab b
	3-4명	192	3.43	.96		
	5명이상	42	3.29	.70		
	계	268	3.46	.96		
친한 이웃수	5명미만	64	3.09	1.08	5.80 **	a ab ab b
	5-15명	94	3.49	.82		
	15-25명	58	3.59	1.04		
	25명이상	22	4.00	.87		
	계	238	3.45	.98		
거주 기간	5년미만	56	3.25	1.16	5.47 **	a a b
	5-15년	126	3.33	.87		
	15년이상	86	3.72	.95		
	계	268	3.44	.98		

*p<.05 **p<.01 ***p<.001 1)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음

이 포함된 젊은 연령층일수록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실천사업에 대한 인지도 차이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12>, 성별, 연령, 친하게 지내는 이웃의 수, 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보다 여자가 실천사업에 대하여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친하게 지내는 이웃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살고 있는 동네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실천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친한 이웃수가 15명 미만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와 5

표 12. 실천사업에 대한 인지도 차이분석

(n=280, 단위:명)

구분		N	평균	SD	F	Scheffe ¹⁾
성별	남	42	3.29	1.08	33.16 ***	-
	여	230	4.06	.73		
	계	272	3.94	.84		
연령	30대미만	80	3.45	.89	24.40 ***	a b b
	40대	104	4.04	.81		
	50대이상	88	4.27	.62		
	계	272	3.94	.84		
친한 이웃수	5명미만	64	3.59	.93	16.40 ***	a a b b
	5-15명	96	3.85	.71		
	15-25명	56	4.46	.63		
	25명이상	22	4.36	.49		
	계	238	3.97	.81		
거주 기간	5년미만	56	3.61	1.05	6.89 **	a b b
	5-15년	124	3.95	.73		
	15년이상	90	4.13	.81		
	계	270	3.94	.85		

*p<.05 **p<.01 ***p<.001 1) 같은 문자로 표시된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음

년 이상인 집단간에는 실천사업 인지도에 대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랜기간 한 동네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이웃의 수가 많아진 거주자일수록 자신의 거주지에서 실행되고 있는 실천사업을 더 잘 알게 되는 경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분석의 종합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은 주거지 환경변화 가운데 주변 가로공간의 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한 점과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한 점을 가장 잘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환경 보존과 커뮤니티 활성화와 관련된 실천에 대해서는 개선의 정도가 미흡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둘째, 가로환경개선의 변화내용 가운데는 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내용 가운데는 쌈지공원 조성을 가장 잘 개선시킨 항목이라고 여겼다. 자연환경 보존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하천정비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내용 가운데는 다양한 마을행사 개최와 상가지역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킨 것을 개선이 가장 잘된 부분으로 꼽았다. 반면,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의 조성, 주차공간 확보, 생태환경 보존, 노후화된 주택개조와 철거 등에 대해서는 개선의 정도가 미흡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셋째, 조사대상자들은 사업기간동안 전반적으로 변화된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 쾌적하고 특색 있는 동네이미지, 주거지에 대한 자부심 형성, 그리고 이웃과의 교류가 많아진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주거지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넷째, 거주자들은 자연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쓰레기 배출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지가 될 수 있다고 여겼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와 대체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주거지가 실현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지역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지의 경제적 향상에도 기여함으로써 주거지의 경제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기며, 대중교통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한 보행자전용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교통체계가 갖추어진 주거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여겼다. 이와 함께, 주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 서비스를 확보되고 거주자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교류와 융합이 이루어지는 주거지가 실현된다고 생각하였으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물리적 환경을 갖추으로써 재해예방에 대응하는 주거지는 물론, 재해 발생시 빠른 복구가 가능한 주거지가 실현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다섯째, 조사대상자들은 주거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사 등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는 편이며, 특히 수년에 걸쳐 실행되었던 주거지의 환경개선

과 변화를 위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높은 관심과 인지도를 갖고 있었다. 또한, 현재 거주지에서 오랜 기간 살면서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 많은 4·50대 여성거주자들이 자신의 동네에서 실천하고 있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었다. 또한, 남자나 젊은 연령층에 비하여 동네의 행사 참여나 높은 인에 대한 의견교환, 동네에 대한 평소 관심정도 또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남자거주자나 가족의 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학생을 포함하는 젊은 거주자 층은 동네에 대한 관심이나 이웃과의 의견교환, 실천사업 등과 같은 거주지의 일에 다소 무관심한 경향을 보였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현을 위해서 거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들의 의견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적 고려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거지내 가로공간은 차량의 통행, 보행자의 이동 등 가장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사업 이전에 비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된 학교 주변도로와 보행공간은 자녀가 있는 거주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사업결과로 인식되었다. 또한, 거주자들의 휴식을 돕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는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의 충분한 확보도 만족스러운 사업결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주거지의 물리적 환경 가운데 통행과 관련된 가로공간을 개선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녹지공간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한 실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되, 가시적 목적이 아닌 거주자의 이러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주거지 실현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환경, 사회문화, 경제적 차원의 조건을 고루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경제적 차원에서는 정책적 문제가 포함되는 조건들이 많아 즉각적인 변화나 개선효과를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거지와 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필요한 실현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내 고용의 기회 제공, 노후화된 주택 개선, 주택의 주택시장 활성화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실현해 나가는 개발방향이 요구된다. 이는 지역경제가 자생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주거지의 발전 위한 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거주자들은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행사와 개선사업에 많은 관심과 인지도를 갖고 있어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현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친한 이웃이 많은 장년층 여성거주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 반해, 젊은층, 남자거주자, 또는 거주한

지 오래되지 않거나 이웃과 교류가 빈번하지 못한 거주자는 동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는 향후 주거지를 위한 개선사업 및 정부차원의 실천사업 등을 수행할 경우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어서 이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젊은층과 거주기간이 길지 않은 주민에 대한 적극적 홍보나 주거지의 환경변화 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등과 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실천사업을 실현하는데 있어 아직은 주민주도의 의미가 미약한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어떤 거주특성과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관심의 차이가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성별, 연령, 거주기간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주민들 모두 자신의 거주지에서 실현되고 있는 다양한 실천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등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그 사업이 주민참여와 공감형성이라는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현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를 통해 많은 거주자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와 지속가능한 주거지를 만들기 위한 실천사업에 높은 관심과 인지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속가능한 주거지 즉 살고싶은 도시 및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계획을 통한 설계도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거주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천항목과 실제 실천사업에서 실행된 항목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거주자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주거지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한 계획 개념이 기존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개발과 신도시 개발에 도입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기존 구도심의 주거지 및 소규모 주거지는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지만 그에 대한 기준은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개념의 활용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노후화된 주거지가 시범사례로 선정되어 개선사업이 실행된 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과 사회적 발전에 대하여 거주자들의 관심과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의 참여유도와 공감을 위한 고려사항을 살펴봤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2개 시범사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례에 대한 제한된 부분이 많고 일반화하기에도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사례지역의 범위를 넓혀 지역별 비교분석을 통해 다각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8-65, 서

- 울: 코리아프린테크.
2. 레스터 W. 말브래스 저 (2001). 노병철 · 박지운(역). 지속 가능한 사회,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의 이해. 서울: 인간사랑.
 3. 김묘정 (2009). 지속가능한 주거지 실천사례 연구-정부와 민간차원의 도시 및 마을만들기 사례의 지속가능성 실천항목의 반영.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5), 73-84.
 4. 목정훈 (2006).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활성화방안 연구(시정연-2006-R-05).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5. 오덕성 · 염인섭 (2008). 지속가능한 자원절약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4(1), 173-184.
 6. 유수훈 · 조동우 (2004).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공동주택의 영향인자분석에 관한 전문가 의식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3), 15-26.
 7. 안상욱 · 문준경 · 최승희 (2009).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의 특성 분석 연구-07-08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사업을 대상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9 춘계산학협동 학술대회 논문집, 127-134.
 8. 이규인 (2003). 주거단지계획의 환경적 지속성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설정방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1), 191-199.
 9. 이민선 · 정진주 · 최효승 (2007).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실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 9(3), 63-72.
 10. 이창호 · 정보리 (2010).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8), 245-255.
 11. 진미윤 · 이유미 · 조인숙 (2007).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8(1), 103-112.
 12. 하성규 · 김재익 · 전명진 · 문태훈 (2006). 지속가능한 도시론. 서울: 보성각.
 13. Partners for Livable Communities Staff (2000). *The Livable City: Revitalizing Urban Communities*. Washington, D.C.: McGraw-Hill. Inc.
 14. <http://www.city.go.kr>(도시포털)
 15. <http://www.dosi.or.kr>(도시연대)
 16. <http://www.la21.or.kr>(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17. <http://www.un.org>(유엔)
-
- 접수일(2011. 5. 27)
수정일(1차: 2011. 7. 15, 2차: 2011. 8. 10)
재확정일(2011. 8. 19)